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7.(수) 11:00 < 12.8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	
담당 부서	통상법무정책관	책임자	과 장	고상미 (044-203-5620)
	통상법무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이창우 (044-203-4878)
			사무관	김혜림 (044-203-4879)

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비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 논의

- 산업부, 「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」 세미나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2월 7일(수) 오후 1시에 「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*) 대비 국내 대응 전략」 세미나를 개최하였다.

*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

< 세미나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22.12.7(수) 13:00~15:00 / 웨스틴 조선 서울
- **주 제** : "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대비 국내 대응 전략"
  * ❶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, ❷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, ❸CBAM 대비 우리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
- **주최/주관 :** 산업부 / 대한상의
- **참 석** : 수출기업, 업종별 협·단체, 학계·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

○ 금번 세미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*에서 **수출기업과 함께 입법 동향 및 우리 산업 영향을 점검**하고 **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EU측은 금년 내 CBAM 관계법안 제정을 위해 현재 집행위-유럽의회-이사회 간 3자협의(Trilogue) 진행 중

□ 이날 세미나에서 노건기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“EU는 **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**으로 **CBAM 도입을 추진 중**이며, 집행위의 당초 계획대로 **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**는 **불투명**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**모든 가능성을 고려**하여 **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**가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“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**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**되고, **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***해 왔으며, 앞으로도 **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**”이라고 설명하였다.

* 한-EU FTA 무역위(양자), 시장접근위원회/TESSD 등 WTO 정례회의(다자) 계기 협의 다수 진행
** EU측에 CBAM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서(Non-paper) 제출 등

○ 아울러, “국내의 탄소발자국 **측정·보고·검증**(MRV) **기반을 확충***하고 **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****을 추진하는 한편, **중소·중견기업**의 **CBAM 대응**을 **적극 지원**해나갈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* 국내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을 위한 MRV 기반 강화 방안 논의('22.9, 비상경제장관회의)
**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('23~'30년, 총 9,352억원, 철강·화학·시멘트 포함)

□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❶‘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’, ❷‘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’, ❸‘CBAM 대비 우리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’에 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다.

① **법무법인 광장 정기창 변호사**는 “EU측은 12.12일주에 **CBAM 최종법안 합의를 위한 3자협의**(Trilogue)**를 가속화**할 예정으로, 對EU 수출 기업은 **전환기간 개시에 대비**하여 **법안의 내용 및 세부 이행사항을 파악**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아울러, “**CBAM 적용품목***에 대해 **EU 집행위원회·이사회**와 **의회안**이 **상이**하고 **의회안**의 경우 **간접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**하고 있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, **탄소배출량 측정방식은** 향후 **집행위 이행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**되는바 이에 대한 **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**하다”고 언급했다.

* 집행위원회/이사회안 : 5개 품목(철강, 알루미늄, 시멘트, 비료, 전력)
유럽의회안 : 5개 품목 + 4개(플라스틱, 유기화학품, 수소, 암모니아) 품목 추가

② **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**는 “**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**을 고려하면 **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*이나**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**속도감 있는 탄소경쟁력 강화가 필요**하다”고 강조하였다.

* 일관제철 기준 우리나라 철강의 탄소집약도는 2톤 수준으로 일본, 러시아, 터키 등에 비해 낮은 수준(EU Joint Research Center, 2022)

- 특히, “**제품 내재 탄소배출량의 산정/보고** 등에 대한 **우리 역량**을 **지속 강화**하면서 **중장기적**으로는 **선제적 투자**를 통한 **저탄소 제품의 개발**과 **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**을 **적극 추진할 필요**가 있다”고 제언하였다.

③ **한국생산기술연구원**(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) **신호정 실장**은 “CBAM에 대비하여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**중소·중견기업***을 **지원**하고, **탄소배출량 산정 기초정보**** **데이터베이스를 확충**하며, 국내 검증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검증인력·기관 확충 등 **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**”고 제언하였다.

*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,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 속하지 않아 관련 이행 경험이 부족한 중소·중견 기업 등을 지원 예정

**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보,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원·부자재(원유, 금속), 유틸리티(전기, 용수) 등에 대한 국가 단위의 환경정보(현재 약 800건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